

카데바 실습교육이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죽음태도 및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에 미치는 효과

서영숙*, 정추영*, 권영채**
대구보건대학교 간호대학*
가야대학교 간호학과**

Effect of Education in Cadaver Practice on the Self-efficacy, Attitudes to death and Professional self -concept of Nursing students

Young-Sook Seo*, Chu-yeong Jeong*, Young-Chae Kwon**
Assistant Professor, Dept. of Nursing, College of Daegu Health*
Assistant Professor, Dept. of Nursing, Kaya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카데바 실습교육이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죽음태도와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 고자 시도하였다. 연구방법은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의 유사실험 연구이며, 자료수집 기간은 2016년 11월 1일에서 11월 30일까지이다. 연구대상자는 D시 소재의 1개 대학교 2학년 중 연구 참여를 희망하고 동의한 실험군 29명, 대조군 30명으 로 총 59명이다. 카데바 실습교육은 회기 당 이론교육 3시간, 실습교육 4시간으로 구성하였고, 총 3회기를 실시하였다. 자료분석 방법은 SPSS/WIN 21.0 program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χ^2 test와 t-test로 분석하였다. 카데바 실습교육 적용 전후의 두 집단 간의 자기효능감, 죽음태도 및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을 비교하여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카데바 실습교육 실시 전후 두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자기효능감($t=2.62, p=.028$), 죽음태도($t=5.67, p=.000$)와 간호전문 직 자아개념($t=2.57, p=.013$)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카데바 실습교육은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이 향상되었고, 죽음태도와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간호대학생 의 해부학 실습교육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 죽음태도, 카데바, 교육, 간호대학생, 자기효능감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cadaver practice education on self-efficacy, attitude to death, and nursing professional self-concept of nursing students. The study was designed using a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design, data was collected November 1 and 30, 2016. The participants were 59, 2-year nursing students (29 in the experimental group and 30 in the control group) attending 1 university located in D City. Cadaver practice education program was performed 3 sessions combined 3 hours theoretical explanation and 4 hours cadaver practice a session.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analysis, χ^2 test, and t-test with the SPSS/WIN 21.0 program. The results of the study indicate that the cadaver practice education were effective in the experimental group reported a significant increase in self-efficacy($t=2.62, p=.028$), attitude to death($t=5.67, p=.000$), and nursing professional self-concept($t=2.57, p=.013$) compared to students in the control group in nursing students. The results of the study indicate that the cadaver practice education was effective in increasing self-efficacy, attitude to death, and nursing professional self-concept of nursing students. These results provide basic data to develop future anatomy practice curriculum.

Key Words : Attitude to death, Cadaver, Education, Nursing student, Self efficacy

Received 8 April 2017, Revised 1 May 2017
Accepted 20 May 2017, Published 28 May 2017
Corresponding Author: Young-Chae Kwon(Kaya University)
Email: nahante55@hanmail.net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졸업 후 임상 간호사로 간호대상자에게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간호대학생들은 인체에 대한 구조와 기능에 대한 지식을 정확하게 학습해야 할 필요가 있다[1]. 이러한 지식은 간호교육에서 기초간호 교과목을 통해 배우게 되는데[2,3], 특히 인체구조에 대한 해부학의 경우 형태학으로 새로이 학습해야 할 개념들이 방대한 편이며[4,5]. 많은 학생들이 생소해하고 학습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교과목이다[6].

한편 많은 간호대학에서 해부학은 1학년 또는 2학년 교육과정으로 개설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대학에서는 입학과 동시에 해부학을 접하게 되고, 일부 간호대학생들은 고등학교에서 해부학의 사전학습과 관련 있는 생명과학 분야의 교과목을 이수한 경험이 전혀 없는 학생들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7]. 이에 많은 간호대학에서는 학생들의 기초학력 증진을 위해 생물학 또는 생명과학 등을 교양 및 기초교과목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학생들은 여전히 해부학이 어렵고 부담스러운 교과목으로 인식하고 있어[4,7], 해부학 교육에 대한 심도 있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4,8]에서 해부학 교육은 이론교육과 더불어 다양한 교육매체를 활용한 실습교육을 통해서 해부학적 지식을 통합하는데 효과적이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9]. 해부학에서 실습교육 방법은 다양한 플라스틱 해부모형을 활용하거나 컬러 찰흙으로 인체모형 만들기, 3D 프로그램 첨단 매체, 동영상 활용, 관찰, 시신해부실습, 연수회 참여 및 카테바 실습 등 다양한 교육매체를 활용하고 있다[9,10].

특히 다양한 실습교육 방법 중에서 카테바 실습교육은 인체구조를 관찰하고 직접 만져보면서 전통적 강의에서 볼 수 없는 진지함과 호기심, 능동적 학습태도를 보여 실습교육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고되고 있다[4,11,12]. 그러나 현재 많은 간호대학에서 해부학은 기초간호학을 교육할 수 있는 준비된 전공교수의 부족으로 외래교수에 의해 이론교육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실습장소 부족이나 해부실습 접근성의 어려움 등 환경제약으로 실습교육이 어려운 실정이다[10]. 한편 일부 간호대학은 국내 의과대학이나 중국, 동남아시아 등에서 실

시하는 해부학 교실과 연계하여 인체 전체 계통별 실제 해부를 관찰하고, 부분적으로 직접 해부를 수행하는 실습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10,11].

간호교육에서 해부학의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실습교육에 대해 이해와 관심이 요구되는데, 일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간호대학생의 81.6%, 간호대학 교수는 95.5%가 카테바 실습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10]. 또한 카테바 실습교육에 참여한 간호대학생의 경우 인체구조와 기능에 대해 이해도와 간호학문에 대한 열의가 높아졌다고 보고하였다[10]. 이처럼 해부학 교육에서 카테바 실습교육은 해부학적 지식을 통합할 뿐 만 아니라 간호학문에 대한 자신감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한편 카테바 실습에 참여한 학생들은 카테바와 마주하면서 경이감과 부담감, 공포, 두려움 등의 다양한 심리적 반응을 경험하였으나[1,2,13], 카테바를 자주 접하고 해부관찰을 거듭해감에 따라 기증자에 대한 추모와 감사함을 느꼈으며, 삶과 죽음, 신과 종교, 신체의 신비와 소중함을 통해 영적안녕, 죽음태도, 인간 존엄성과 생명윤리의식이 향상되었다고 한다[10,14]. 이처럼 카테바 실습교육에서 학생들은 삶과 죽음을 생각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고, 살아있음에 대한 소중함, 생명윤리의식, 영적안녕, 죽음태도 등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고 보여진다.

또한 간호대학생은 카테바 실습교육을 마치면서 간호학문의 전공에 대한 만족감과 간호사에 대한 자화상을 찾아가며, 특히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삶에 대한 비전과 사명감을 함양하게 되었다고 하였다[10]. 이처럼 카테바 실습교육은 간호대학생이 간호전문직 인식과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임상현장에서 간호사는 전문직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있는 능력, 간호 전문직관, 생명윤리 및 죽음에 대한 판단 등의 윤리적 가치관이 질적간호 제공에서 중요한 변수[15,16]로 작용한다. 이에 미래간호사의 간호대학생은 임상수행능력과 더불어 간호전문직관과 생명윤리, 죽음에 대한 가치관 형성이 훌륭한 간호사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변수이다. 특히 간호전문직관은 전문직 지식과 가치 등에 대한 자아성찰이 요구되는데, 카테바 실습교육 경험은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을 형성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국내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카테바 실습교육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카테바 실습에 대

한 필요성 연구[10], 해부실습 견학 효과[17], 실습 스트레스와 실습태도[1,18], 경험을 통해 형성된 사고와 감정의 탐색연구[3], 영적안녕과 죽음태도[14] 등으로, 이들 대부분 연구는 조사연구와 실습 전후 지식경도와 태도를 비교한 연구들이다. 그러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기효능감과 죽음태도,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을 통합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카테바 실습교육을 적용한 후 자기효능감, 죽음태도와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에 대한 효과를 규명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카테바 실습교육 운영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게 되었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카테바 실습교육을 적용하고, 자기효능감과 죽음태도, 전문직 자아개념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함이며,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카테바 실습교육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은 자기효능감의 점수 차이가 있을 것이다.

둘째, 카테바 실습교육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은 죽음태도의 점수 차이가 있을 것이다.

셋째, 카테바 실습교육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은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의 점수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카테바 실습교육이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죽음태도 및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의 유사 실험연구(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design)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 대상자는 D시에 소재한 1개 간호학과에서 해부학을 이수한 2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편의 추출하였다.

표본 수는 선행연구[14]를 근거로 G*Power 3.1.2 program을 이용하여 t-test를 위한 대상자 수를 추정해

보면, 유의수준(α) .05, 검정력($1-\beta$) .80, 효과크기(d) 0.8로 설정한 결과 각 집단별 최소 표본 수는 28명이었다. 이에 탈락률을 고려하여 각 집단별 30명을 목표인원으로 하였으며, 최종분석 대상자 수는 실험군 30명 중에서 개인사정으로 탈락한 1명을 제외하고 실험군 29명, 대조군 30명 총 58명 이었다.

연구 기간은 2016년 11월 1일에서 11월 30일까지였고, 자료 수집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자료수집방법은 조사방법 및 절차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연구보조원에게 설문지와 자료수집방법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은 연구자와 연구보조원이 함께 교실을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연구 참여에 서면동의를 얻었으며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연구 참여를 포기할 수 있음을 알린 후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카테바 실습교육은 2016년 11월 7일부터 12월 30일까지, C대학교 응용해부연구소 해부학 교실에서 실시하였다. 카테바 실습교육 진행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해부학 전공교수 3인과 보조요원 3인으로 구성하였으며, 진행자와 연구진행 보조요원은 카테바 실습교육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회기 별로 시작 전 사전회의를 통해 각 회기의 목적과 내용, 절차, 방법 등에 대해 공유하였다. 카테바 실습교육방법은 연구 참여자의 요구 및 C대학교 응용해부연구소의 기존 프로그램 운영 내용을 기초로 신경계, 근골격계, 내부 장기, 심혈관계, 호흡기계 등 각 계통별로 실습하기 위해 회기 당 이론교육 3시간, 실습교육 4시간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카테바 실습 교육 종료 후에는 준비된 카테바 실습일지에 실습경험을 기록하도록 하였으며 피드백을 1시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실험군은 11월 7일부터 9일까지 총3회기 카테바 실습교육을 적용하였으며 대조군에게는 카테바 실습교육을 적용하지 않았다. 자료수집 방법은 실험군은 카테바 실습 1회기에 사전조사를 실시하였고 3회기에 사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대조군은 실험군과 동일한 시기에 설문조사하였다. 실험 종료 후 대조군에게는 12월 28일부터 30일까지 동일한 카테바 실습교육을 제공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Sherer [19]등이 개발한 자기효능감 도구를 Hong [20]이 번안하여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3문항의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자기효능감 등 2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5점 Likert의 도구이다. 각각의 항목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배점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Hong [18]의 연구에서 Chronbach’s α .86이었고, 본 연구에서 .83이었다.

2.3.2 죽음태도

죽음에 대한 태도는 Thorson과 Powell [21]이 개발한 도구를 Jun [22]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5문항의 긍정적인 문항과 부정적 문항으로 구성된 4점 Likert의 도구이다. 각각의 항목은 ‘거의 그렇지 않다’ 1점에서 ‘언제나 그렇다’까지의 4점으로 배점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죽음태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Cronbach’s α .83이었고, 본 연구에서 .86이었다.

2.3.3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은 Arthur [23]가 개발한 도구를 Seo [24]가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7문항의 전문직실무, 만족감, 의사소통 등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4점 Likert이다. 각각의 항목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으로 배점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Seo [24]의 연구에서 Cronbach’ α .87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4이었다.

2.4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 program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종속변수는 기술통계로 산출하였고, 두 집단 간의 동질성 검증은 χ^2 -test와 independent t-test, Fisher’s exact 로 분석하였다. 카테바 실습교육 후 두 집단 간의 종속변수의 차이 검증은 independent t-test으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종속변수의 동질성 검증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동질성을 분석한 결과, 연령은 실험군이 20.16세이며, 대조군은 22.47세이며, 성별은 실험군에서 남학생이 15.6%, 여학생이 84.4%, 대조군은 남학생이 23.5%, 여학생이 76.5%이었다. 학업성취도는 ‘중’이 실험군은 75.9%, 대조군은 76.7%, 간호학과 지원동기는 ‘고등학교 성적’이 실험군은 41.4%, 대조군은 43.3%이었다. 최근 가족 또는 친척의 죽음을 경험 유무는 ‘없다’가 실험군은 79.3%, 대조군은 83.3%를 차지하였다<Table 1>. 대상자의 종속변수의 동질성 검증을 분석한 결과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차이가 없어 두 군 간에 동질성이 확인되었다<Table 2>.

<Table 1> Homogeneity test for General Characteristics

(N=59)

Characteristics	Categories	Exp. (n=29)	Cont. (n=30)	χ^2 or t	p
		n (%) or M±SD	n (%) or M±SD		
Age (yr.)		20.16±3.04	22.47±3.03	14.67	.100
Sex	Men	3 (15.6)	4 (23.5)	12.43	.190*
	Woman	26 (84.4)	26 (76.5)		
Religion	Yes	8 (27.6)	6 (20.0)	0.47	.493
	No	20 (72.4)	24 (80.0)		
Academic achievements	High	5 (17.2)	7 (23.3)	2.24	.310
	Middle	22 (75.9)	23 (76.7)		
	Low	1 (1.0)	0 (0.0)		
Application motivation	Employment guarantee	7 (24.1)	4 (13.3)	1.23	.745
	Recommendation of others	7 (24.1)	9 (30.1)		

<Table 2> Homogeneity test for Self-efficacy, Attitudes to death, and Nursing Professional Self-concept (N=59)

Variables	Mean±SD		χ^2 or <i>t</i>	<i>p</i>
	Exp. (n=29)	Cont. (n=30)		
Self-efficacy	3.53±0.32	3.64±0.34	14.62	.147
Attitudes to death	2.69±0.41	2.63±0.34	9.89	.272
Nursing professional self-concept	3.72±0.24	3.63±0.23	14.68	.259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Table 3> Repeated Measures Analysis of Variance in Dependent Variables (N=59)

Variables	Groups	Mean±SD			<i>F</i> ^b	<i>p</i>
		Pre-test	Post-test	Difference		
Self-efficacy	Exp. (n=29)	3.53±0.32	3.86±0.23	0.33±0.37	2.62*	.028
	Cont. (n=30)	3.64±0.34	3.69±0.47	0.04±0.58		
Attitudes to death	Exp. (n=29)	2.69±0.41	3.75±0.34	1.06±0.53	5.67***	.000
	Cont. (n=30)	2.63±0.34	2.90±0.20	0.32±0.46		
Professional self-concept	Exp. (n=29)	3.72±0.24	3.89±0.82	0.17±0.31	2.57*	.013
	Cont. (n=30)	3.63±0.23	3.65±0.23	0.01±0.12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b=Between group. ***p<.001, **p<.01, *p<.05

3.2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죽음태도 및 간호전 문직 자아개념의 차이 검증

카테바 실습교육 전과 후에 따른 자기효능감, 죽음태도와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자기효능감의 평균점수는 실험군이 카테바 실습교육 실시 전 3.53점에서 카테바 실습교육 실시 후 3.86점이었고, 대조군이 3.64점에서 3.69점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간의 자기효능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62$, $p=.028$). 죽음태도의 평균점수는 실험군이 카테바 실습교육 실시 전 2.69점에서 카테바 실습교육 실시 후 3.75점이었고, 대조군이 2.63점에서 2.90점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간의 죽음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5.67$, $p=.000$).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의 평균점수는 실험군이 카테바 실습교육 실시 전 3.72점에서 카테바 실습교육 실시 후 3.89점이었고, 대조군이 3.63점에서 3.65점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간의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57$, $p=.013$)<Table 3>.

4. 논의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근거로 간호대학생의 카테바 실습교육이 자기효능감, 죽음태도 및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여, 간호대학생의 기초학습

능력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카테바 실습교육 실시 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자기효능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카테바 실습교육을 적용한 선행연구는 찾아볼 수 없어서 본 연구결과를 구체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낮은 전공실습이라는 점에서 유사한 상황인 간호학생의 첫 임상실습 경험을 비교해 보았을 때 자기효능감이 향상된 결과[25]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는 학생들이 낮은 실습환경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주어진 과제를 완수하고 실습에 대한 자신감이 향상되었다고 사료된다. 특히 자기효능감은 어떤 결과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개인의 신념으로, 간접경험이 많을수록, 전공지식이 확고할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아진다고 하였다[17,19,26]. 이는 카테바 실습교육 또는 임상실습교육 등을 통해 전공지식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려는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고 보여진다. 또한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시신해부실습의 효과 연구[14] 결과에서도 성취감 영역이 가장 유의하게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도 유사한 맥락이다. 이상의 결과에서 카테바 실습교육은 간호대학생들이 이론으로만 배웠던 인체에 대해 실습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어 인체구조와 기능에 대한 학습에 대한 자신감을 획득하게 되고 또한 자신에게 내재된 자기효능감을 강화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와 학과 내에서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해부학 교과목을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연구대상자를 확대하여 반복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카테바 실습교육 실시 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죽음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카테바 실습교육을 실시한 결과 죽음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보고한 Lee [14]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호스피스 병동을 실습한 간호대학생의 죽음태도를 검증한 Kim [27]의 결과와 유사한 맥락이다. 이는 간호학생들이 카테바 또는 임종과정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러한 계기는 죽음태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된다.

특히 카테바 실습교육에서 처음 카테바를 마주하면서 불안과 두려움, 슬픔과 함께 호기심, 설렘, 기대, 흥미 등의 양가감정을 경험하는데[3,14], 이때 부정적 심리적 경험은 카테바를 여러 차례 접했을 때 생명의 소중함과 인간존엄성, 생명윤리의식 등으로 승화되었고 실습이 점차 편해지기 시작하였다고 보고하였다[3,9,14]. 이상의 결과에서 카테바 실습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경험하면서 인체에 대한 가치, 소중함을 느끼고, 죽음을 이해하고 수용하여, 죽음에 대한 나름의 철학을 정립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사료된다. 한편 선행연구[6,15]에서 죽음태도는 생명윤리의식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에 추후 카테바 실습교육에서 생명윤리의식과 죽음태도를 함께 고려한 확대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카테바 실습교육 실시 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에 대한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의 변수로 논의하고자 한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카테바 실습교육이 영적안녕과 죽음태도가 향상된 결과[13]와 유사한 결과이다. 또한 간호대학생들은 카테바 실습에서 성취감과 안도감 그리고 남다른 경험에 대한 자부심과 더불어 간호학도로서 자화상을 찾아가며, 간호사로서의 삶에 대한 비전과 사명감, 살아있음에 대한 인체의 신비와 소중함을 경험하면서[3],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을 형성하게 된다고 보여 진다. 이처럼 카테바 실습교육은 인체를 해부하면서 삶, 죽음, 생명윤리 등에

대해 숙연함과 자신과 타인의 입장 나아가 미래 환자의 입장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볼 수 있다. 향후 간호대학 또는 간호학과에서 카테바 실습교육과 연계하여 생명윤리, 죽음태도, 영적 안녕 등의 다양한 주제들을 포함한 프로그램을 통해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카테바 실습교육 전후 자기효능감, 죽음태도 및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을 파악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의 유사 실험연구이다. 연구결과 카테바 실습교육은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죽음태도 및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어 그 효과를 확인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해부학 교과목에서 이론교육과 더불어 실습교육을 보완하여 적용해 볼 것을 제언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간호대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일반화하는데 제한이 있다. 이에 카테바 실습교육을 간호대학생들에게 확대하여 추후연구의 효과를 검증하는 반복연구를 제언한다.

REFERENCES

- [1] J. K. Kim, M. S. Jung, K. S. Jang, J. H. Kim, E. K. Kim, H. J. Lee, Y. M. Kim, S. Y. Kim, E. J. Park, "Analysis of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for 3 years(2007-2009)",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16, No. 4, pp. 517-526, 2010.
- [2] Y. J. Yi, K. S. Cho, "Survey on the students's evaluation and the administrative status of biological nursing science subjects in advanced practice nursing programs". *Journal of Korean Biological Nursing Science*, Vol. 13, No. 3, pp. 193-203, 2011.
- [3] M. H. Kim, M. J. Chae, "A Study of Student Nurses' Observation Experiences of Human Body

- Dissection", *Journal of Korean Biological Nursing Science*, Vol. 14, No. 2, pp. 94-102, 2012.
DOI:<http://dx.doi.org/10.7586/jkbns.2012.14.2.94>
- [4] J. H. Sim, "The learning effects of instructional media on anatomy classes in a nursing college", *Journal of Korean Biological Nursing Science*, Vol. 11, No. 1, pp. 51-58, 2009.
- [5] J. G. Kim, S. M. Oh, E. Y. Chen, J. H. Yoo, "Factors influencing the attitude toward death in college nursing student",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No. 1, pp. 676-683, 2016.
DOI:<http://dx.doi.org/10.5762/KAIS.2016.17.1.676>
- [6] J. H. Park, J. H. Kim, K. H. Kim, "Correlation between Self-evaluation Factor and Academic Achievement of Medical Students according to Introduction of Explanation Meeting in Cadaveric Dissection",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1, No. 7, pp. 2475-2482, 2010.
- [7] K. S. Lee, E. O. Choi, J. S. Jeong, "Survey of curriculum for 4 subjects (structure and function of body, clinical microbiology, pathophysiology, & mechanism and effect of drugs) of biological nursing in undergraduate nursing education", *Journal of Korean biological nursing science*, Vol. 16, No. 1, pp. 17-25, 2014.
DOI:<http://dx.doi.org/10.7586/jkbns.2014.16.1.17>
- [8] S. H. Jeong, "The Application and effects of creative training techniques to an anatomy subject for biological nursing science education", *Journal of Korean Biological Nursing Science*, Vol. 11, No. 2, pp. 183-194, 2009.
- [9] D. H. Kim, "The effect and suggestions for operation of cadaver dissection program for dental hygien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Anthropology*, Vol. 28, No. 4, pp. 213-221, 2015.
DOI:<http://dx.doi.org/10.11637/kjpa.2015.28.4.221>
- [10] D. I. Kim, "Questionnaire survey analysis on necessity of cadaveric dissection for nursing students-in scope of nursing students and professors",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Anthropology*, Vol. 28, No. 2, pp. 119-125, 2015.
DOI:<http://dx.doi.org/10.11637/kjpa.2015.28.2.119>
- [11] C. R. Davis, A. S. Bates, H. Ellis, A. M. Roberts, "Human anatomy: let the students tell us how to teach". *Anatomy Science Education*, Vol. 7, No. 4, pp. 262-272, 2014
- [12] J. C. McLachlan, J. Bligh, P. Bradley, J. Searle, "Teaching anatomy without cadavers", *Medical Education*, Vol. 38, pp. 418-424, 2004.
- [13] S. I. Oh, "Attitudes of nursing students toward autopsy", Unpublished Master' Thesis, Department of Forensic nursing Graduate School of Forensic Investigative Scienc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2010.
- [14] M. R. Lee, "A study on the spiritual well-being and attitudes to death in nursing students after anatomy cadaver practice",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 5, No. 4, pp. 287-295, 2015.
DOI:<http://dx.doi.org/10.14257/AJMAHS.2015.08.2015.08.29>
- [15] E. J. Seo, N. H. Cha, "Relationships among nursing professional values, bioethics and death ethic percep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4, No. 5, pp. 349-358, 2016.
DOI:<http://dx.doi.org/10.14400/JDC.2016.14.5.349>
- [16] S. A. Yang, "Convergence Analysis of Factors Influencing the End-of-life Care Attitude in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7, No. 4, pp. 141-154, 2016.
- [17] W. S. Kim, "The effect of observation program of cadaver dissection for the paramedical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Anthropology*, Vol. 25, No. 2, pp. 77-86, 2012.
- [18] H. J. Lee, "Convergence Study on Nursing Students' Stress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7, No. 4, pp. 75-83, 2016.
- [19] M. Sherer, J. E. Maddux, B. Mercandante, S. Prentice-Dunn, B. Jacobs, "The self-efficacy scale:

Constra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s*, Vol.51, pp.663-671, 1982.

- [20] H. Y. Hong, “The Relationships of perfectionism, self-efficacy and depress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1995.
- [21] J. A. Thorson, F. C. Powell, “Elements of death anxiety and meanings of deat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 44, pp. 691-701, 1988.
- [22] J. S. Jun, “Spiritual well-being, attitude to death and perception of hospice among nurse”, Unpublished Master’ Thesis, Pusan Catholic University, Pusan, 2011.
- [23] D. Arthur, “Measurement of the professional self-concept of nurses: developing a measurement instrument”, *Nurse Education Today*, Vol. 15, pp. 328-333, 1995.
- [24] H. Seo, “Nursing college students’ nursing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their satisfaction with clinical nursing practice”, Unpublished Master’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2007.
- [25] S. H. Lee, “Effect of clinical practice orientation program on anxiety, self-esteem and self-efficacy in college students in nursing”, *Korean Academy Fundamental Nursing*, Vol.15, No. 4, pp. 539-547, 2008.
- [26] A. Bandura, “The explanatory and predictive scope of self-efficacy theory”, *Journal of Consulting & Clinical Psychology*, Vol. 4, No. 3, pp. 359-373, 1986.
- [27] G. D. Kim, “The Effects of hospice unit practice education on spiritual well-being, attitude to death, and hospice awareness of nursing students”, *Asian Oncology Nursing*, Vol. 16, No. 4, pp. 176-184, 2016.
DOI:<http://dx.doi.org/10.5388/aon.2016.16.4.176>

서 영 숙(Seo, Young Sook)



- 2011년 8월 : 대구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5년 9월 ~ 현재 : 대구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기초간호학, 간호관리학, 만성질환
- E-Mail : seol657@hanmail.net

정 추 영(Jeong, Chu Young)



- 2014년 8월 :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6년 3월 ~ 현재 : 대구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정신보건
- E-Mail : jcy0902@dhc.ac.kr

권 영 채(Kwon, Young Chae)



- 2012년 2월 : 인제대학교 대학원 보건행정학과 (보건행정학 박사)
- 2015년 8월 :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박사과정수료
- 2012년 10월 ~ 현재 : 가야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보건행정, 지역사회간호
- E-Mail : nahante55@hanmail.net